

테마칼럼

건강과 생활

교육을 생각한다

문화와 창조

도시와 삶

광주의 상생적 대외 도시 정책



노경수

광주시가 명실상부한 호남권의 중추도시로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남뿐만 아니라 국내 도시들과의 연계체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중고칼럼



시몽

12월은 세월을 매듭짓는 종점의 의미가 있다. 그런데 나에게 있어 그 종점은 언제나 가까스로 와 닿은 하나의 강기슭 같은 것이어서 거기에는 남들이 흔히 말하는 절망감이나 후회 같은 것은 없어야겠다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한다.

두고 떠나는 마음

종점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무심코 주변을 휘둘러보기도 하고 자기의 텅 빈 눈을 허탈한 눈으로 내려다보기도 할 것이다. 내가 왜 무엇을 위해서 뛰었던가, 회의에 빠진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모두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 세상을 떠나려니 생각하면 금세 가슴 구석이 저미어 울을 감지한다.

포기하는 생활의 연속 속에서 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아주 떠나버리는 연습,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연습을 빈손이 되는 연습을 조금씩 해 온 것이다.

기고



김광섭

우리 나라도 경제적 성장과 함께 의료 등 사회적 환경이 좋아져 이제 장수 국가가 되었다. 지금 중학교에 다니는 우리의 자녀는 평균수명이 90을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건강하게 공부하려면 아침밥 먹어야

아쉽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아침 식사부터 챙겨주는 부모의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일본에서 '아침밥 먹기 운동'이 한창이다. 왜 그럴까? 이유는 자녀의 건강 정도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기 때문이다.

목욕탕 질병 전염 가능성 높아 예방 대책 필요

최근에 병원에 갔다가 의사선생님으로부터 간염이 쉽게 전염될 수 있는 공간중 하나가 바로 목욕탕이라는 사실을 듣고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도시라는 유사한 성격을 갖는 이들 도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들 도시에 대해 객관적으로 장단점을 분석해서 광주는 그 비교 우위에 대해 차별화·고급화 정책이 요구된다.

시설

'날치기'로 또 날아간 광주·전남 현안 예산

한나라당이 3년 연속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국회 상임위 등에서 반영되거나 증액된 광주·전남지역 현안 예산이 무더기로 누락 및 삭감돼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됐다.

농협, 광주유통 개장 언제까지 미룰 건가

지역 농산물 판로 확보와 판매 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농협 광주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출범도 하기 전에 백지화되고 있다.

원안 반영돼 내년 F1 대회도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 우리는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정치권의 극한 대립에 따라 한나라당의 단독 예산 통과가 예견되는 만큼 지역 현안 예산의 대규모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누차 지적한 바 있다.

고, 지역농민들은 판로 확보가 용이해지는 등 지역경제에 플러스 요인이 예상된다. 여기에다 신규 인력 채용만도 1000명에 달해 지역 고용창출에 대한 기대도 크다.

無等鼓

영암군 신북면 양계리 금동마을에 가면 '똥배미'라는 논이 있다. '똥'에다 논을 의미하는 '배미'가 붙은 말로 유래는 조선시대 연산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남대로는 근간으로 만들어졌다. 흔히 삼남대로를 천리길로 표현한다. 원래는 한양 숭례문에서 제주 관덕정까지를 말하지만 육지를 기준으로 하면 해남군 북평면 이진항이 종착점이다.



Table with 2 columns: 광주시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for the newspaper and advertising rates.